

# 폭설피해 농가 증가로 양계산물 수급조절 비상

◇ 취재 / 김종준기자

## 1. 현황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으로 인하여 계사와 계분건조장 등이 무너지고 닭이 폐사하는 등 양계농가의 피해가 예상외로 심각하였다. 지난 16일 기준 월간양계에서 자체 집계한 양계농가 피해현황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농가수는 434호이고, 붕괴된 계사는 1,035동, 2백99만8천수에 달하는 닭이 피해를 입었다. 이중 분회회원 농가중 피해를 입은 농가수는 94호, 붕괴된 계사는 176동, 피해수수는 1백17만9천수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를 감안하면 피해는 이보다 더 클것으

로 보고 있다.

붕괴된 계사 중에는 보온덮개계사가 가장 많았고, 신축계사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종별로 피해 상황을 점검해 보면, 종계의 폐사수수는 10만2천수로 피해액은 425백만원에 달한다. 피해를 입은 농가수



표1. 양계농가 폭설피해 현황

영양지수	피해농가	피해계사수	폐사수	비 고	
중계	회원	7	13	85,000	경기·충남지역 피해
	비회원	1	1	17,050	
소 계		8	14	102,050	
산란계	회원	55	83	451,000	·경기·충남지역 피해 ·피해계사에 계란선별장, 계분건조장포함
	비회원	69	95	102,000	
소 계		124	178	553,000	
육계	회원	32	80	643,500	충주·청주·서산·당진피해
	비회원	268	761	1,684,450	
소 계		300	841	2,327,950	
육계	비회원	2	2	15,000	청주지역 피해
소 계		2	2	15,000	
합 계		434	1,035	2,998,000	

•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 조사자료 참조

는 8호, 육용중계 성계사는 13동과 부화장 1동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란계 농장의 피해는 경기도의 연기, 평택, 김포, 이천과 대전 충남지역에 집중되었다. 피해를 입은 124호 농가의 계사중 141동이 완파, 37동이 반파되었고 피해수수는 55만3천수로 나타났다.

완파 및 반파된 계사는 성계사 118동, 육성사 9동, 계분장 44동, 계란선별장2동, 빈계사 5동이다. 무너진 계사는 대부분이 재래식 계사이고, 빈 계사는 3.9% 산란중인 성계가 89.3%, 육성사 6.8%로 계사 파손과 더불어 계란 생산에 차질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육계사육 피해농가는 300호, 피해수수는 2백32만7천수로 841동의 계사가 무너졌다. 이번 폭설 피해는 선산, 당진, 충주, 청주지역 회원농가와 계열업체 계약사육농가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부지원대책

농림부는 지난 10일 20년만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피해 양계농가의 재해복구비용지원은 농림부고시 2000-47호를 근거로한 농가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으로 하며, 폐사된 육계 병아리 427원, 중추 670원이고, 산란계 병아리 553원, 중추 1,700원으로 하되 가축의 육성 가축기준은 육계는 20일령이상 또는 600g이상, 산란계는 70일령 이상 또는 850g이상이어야 하며, 붕괴된 계사의 경우 육계사와 산란계사는 평방미터당 99,000원, 보은 덮개축사는 평방미터당 39,000원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질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복구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사 붕괴의 경우 600㎡미만은 보조 35%, 융자 55%, 자담 10%로 하되 보조는 국고 25%, 지방고 10%로 부담하게된다. 계사 600㎡이상은 보조는 없고 융자 70%, 자담 30%로 나누어진다.

가축입식비 지원에 있어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나누어진다. 융자의 지원

표2. 양계부문 재해 지원 기준

가축 입식	육계	병아리 : 427원 중 추 : 670원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산란계	병아리 : 553원 중 추 : 1,700원	
축사	육계사 및 산란계사	99,000(원/㎡)	600㎡이상 계사 : 융자70%, 자담30% 600㎡미만 계사: 보조35%, 융자55%, 자담10%
	보은덮개 축사	39,000(원/㎡)	

• 육성가축기준 : · 육계 20일령이상 또는 600g이상  
· 산란계는 70일령이상 또는 850g이상



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이고 이율은 5%이다. 단지 지원 대상에서 무허가 계사는 해당되지 않지만 계사 복구를 한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계사 신고를 마친 경우는 지원된다.

농림부는 정부 복구비용 지원이 농가에 시행되는데는 1개월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농가 복구를 돕는다는 판단아래 지난 13일에 이어 15일에 걸쳐 600억원의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하였다. 지역별 자금 배정액을 보면 경기도 21,720백만원, 강원도 1,380백만원, 충북 12,240백만원, 충남 12,960백만원, 전북 720백만원, 경북 8,880백만원, 경남 600백만원, 인천 600백만원, 대전 900백만원이다. 지원조건은 피해액의 20%이내에서 신용과 담보대출로 연리5%, 1년후 상환조건이다.

600억원의 경영자금 지원의 경우 경영자금 배정이 양계농가만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전체 농업 및 축산 농가에게 이루어질 계획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무허가 계사의 경

우 자금 배정 대상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농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농림부에서 무허가 계사라도 차후 허가를 맡아 신축을 하는 농가에 한하여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원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협회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20년만에 처음 발생한 자연재해로 양계농가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양계산물의 수급조절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피해 농가에 대한 농림부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를 입은 회원농가의 재해 복구 및 피해 후유증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차단에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하였다.

더불어 피해를 당한 농가는 피해 상황을 신고하고, 관련증빙자료를 보유할 것과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사 신·개축 계획을 추진하지 말고, 신·개축시에 반드시 건축법을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양계**